

⊙ KIA 오키나와 캠프

# 윤석민 “이젠, 여우가 될래요”

올 시즌 9승... 실패 원인은 '정직한 승부'  
공격적 피칭하려고 무조건 스트라이크 던져  
도망갈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 배워  
내년엔 유인구도 던지고 영리하게 승부해야죠

KIA 윤석민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2013시즌의 답을 찾고 있다. 2011시즌 투수 4관왕으로 어느 해보다 풍성한 가을을 보냈던 윤석민은 '무관의 제왕'으로 올 시즌 가을을 나고 있다. 무사사구 완봉승을 포함해 3차례 완투를 했지만 승은 9승에서 멈췄고, 2.45의 방어율은 3.12로 뛰어올랐다. 또 지난 시즌 172와3분의1이닝을 소화했지만 올 시즌에는 153이닝을 책임지는데 그쳐며 탈삼진 개수도 178개에서 137개로 줄었다. 에이스가 주춤하면서 팀의 순위싸움에도 제동이 걸렸다. 아쉬움이 가득한 2012시즌에서도 방어율은 윤석민에게 가장 미련이 남는 부분이다.

윤석민은 “방어율 타이틀은 가장 지키고 싶었는데 2점대도 찍지 못해서 자존심이 상했다. 밸런스도 끝까지 잡지 않았고 부족했다. 모든 게 다 부족했다”고 올 시즌을 평가했다. ‘트라우마’ 피리표도 떼어내지 못했다. 2010시즌 롯데와의 경기에서 잇달아 나온 사구사건으로 마음 고생을 했던 윤석민은 지난 6월 2년 만에 사직 선발로 나섰다. 3이닝 5실점으로 무너지는 등 롯데전 3경기에 나와 10.38의 방어율로 2패만 기록했다. 윤석민은 “사직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고 상처도 많이 받아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트라우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적이 나지 않았을 뿐이고 내년엔

잘 던지면 그럴 말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패로 이를 넘어서겠다”고 언급했다. 자신이 파악하는 2012시즌의 실패 원인 중 하나는 ‘정직한 승부’다. 윤석민은 “올 시즌 밸런스 등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고, 너무 공격적으로 피칭을 했다. 무조건 스트라이크 위주로 던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부분이 통해서 잘 될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맞을 때 많이 많기도 했다”며 “공격적으로 싸움을 해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도망갈 때도 있어야 한다는 걸 배웠다. 내년에는 유인구도 더 던지고 영리하고 침착하게 승부를 하겠다”고 밝혔다. 부족했던 2012시즌 그래서 지난 17일 시작된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는 윤석민에게 ‘힐링캠프’다. 윤석민은 “부족했던 부분이 많지만 기술적인 부분의 훈련을 많이 하기보다는 스프링캠프를 위한 준비 단계로 마무리캠프를 생각하고 있다. 차분하게 올 시즌을 돌아보고 러닝도 많이 하면서 내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성선기자 sslse@



## 신안 천일염팀

### 챔피언결정전 진출

#### 한국바둑리그

이상훈 감독이 이끄는 신안 천일염팀이 한국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다. 정규시즌 2위 팀인 신안 천일염은 21일 서울 흥익동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막을 내린 'KB국민은행 2012 한국바둑리그' 포스트시즌 플레이 오프 1차전에서 스마트오로에게 2승3패로 뒤진 채 2차전을 맞이했다. 하지만 2차전에서 이호범 3단이 첫 판을 패한 뒤 한상훈 6단·백홍석 9단·이세돌 9단이 내리 3연승을 거둬 종합전적 5승4패로 최종 승자가 됐다. 챔피언 결정전은 정규리그 1위인 한계일(감독 차민수)과 3전 2승승제로 우승을 다투게 됐다. 1차전은 오는 27, 28일에 첫날은 1, 2국, 둘째 날은 3, 4, 5국이 치러진다. 2차전은 11월 3, 4일.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3차전은 11월 10, 11일 치러지며, 매 대국은 '바둑TV'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편 신안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바둑팀을 운영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성선기자 sslse@

## '2012 마구 매니저 아시아 시리즈' 명칭 확정

11월8일 부산 사직구장서 개막  
5개국 프로야구 챔피언 결정전

11월8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개막하는 아시아 5개국 프로야구 챔피언 결정전의 공식 명칭이 '2012 마구 매니저 아시아 시리즈'로 확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2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CJ E&M 넷마블과 아시아시리즈 메인 타이틀 스폰서 조인식을 가졌다. 넷마블은 '마구마구'와 '마구매니저' 등 야구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로 2009~2010시즌 프로야구 공식 타이틀 스폰서를 지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시리즈 우승팀과 사직구장을 연고로 하는 롯데가 한국대표로 나선다. 또 일본 시리즈 우승팀과 라미고 몽키

스(대만), 퍼스 히트(호주), 차이나 울스타(중국) 등 총 6개팀이 참가한다. 호주 시드니 블루삭스에서 뛰고 있는 구대성도 퍼스 히트 소속으로 뛴다. 구대성은 현 소속구단이 아시아시리즈 기간 동안 퍼스 히트로 트레이드하기로 동의하면서 아시아시리즈 참가가 최종 확정됐다.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대회는 세 팀씩 두 개조로 나누어 조별 풀리그를 벌인 뒤 조 1위끼리 격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A조에서는 한국대표1, 라미고 몽키스, 차이나 울스타가 대결을 벌이고, B조에서는 한국대표2, 일본대표, 퍼스히트가 만난다. 우승 상금은 5억원이고 준우승팀은 3억원의 상금을 받는다. 나머지 4개팀에게도 5000만원의 참가비가 주어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여자배구 김연경 터키서 뛰게됐다

배구협회, 해외이적동의서 발급... 先 해외진출 後 FA를 개정

소속 구단과 갈등을 겪어 온 여자 프로배구의 '거포' 김연경(24)이 해외에서 뛸 수 있게 됐다. 대한배구협회 박성민 부회장은 22일 서울 외교통상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연경에게 이른 시일 내에 해외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회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김용환 2차관, 임태희 대한배구협회장, 대한체육회 박용성 회장, 한국배구연맹(KOVO) 박상설 사무총장, 흥국생명 권광영 단장 등 정부와 체육계 인사들이 모여 회의를 한 결과 김연경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우선 현재 규정상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인 점을 감안해 임대 선수 신분으로 소속해 해외진출과 관련한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이와 관련한 KOVO규정을 다른 스포츠 종목과 해외 규정 등을 고려해 3개월 이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KOVO 규정에 따르면 프로배구 선수는 6시즌을 뛰어야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이 규정은 그대로 두되, 자격을 채우기 전에도 선수가 해외 진출을 원한다면 FA 자격을 얻어 외국에서 뛸 수 있도록



김연경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부회장은 이러한 내용이 “참석자 모두가 동의한 ‘최종 결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연경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셈”이라며 “만약 KOVO 이사회에서 이에 반한다면 배구협회에서 권한에 따라 ITC를 발급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한 결과에 따라 김연경은 올 시즌 임대 선수 신분으로 자신이 희망했던 터키의 페네르바체에서 뛸 수 있게 됐다. 또 다음 시즌부터는 정식으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결정은 프로배구를 관장하는 KOVO 이사회를 배제한 채 논의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연합뉴스



## 빙상의 노랑나비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주 켄트의 '스케이팅 아메리카' 대회에서 여자 피겨 싱글 우승자 애슐리 와그너의 연기 모습. /연합뉴스

## 손연재 어찌나...

체조협·소속사 갈등  
코치와 결별할 상황



손연재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18·세종고)가 초창대회 출전 문제로 불거진 대한체조협회와 소속사 IB스포츠의 의견 차이 속에 오랜 스승인 김지희(43) 코치와도 결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김 코치는 신수지(세종대)의 개인코치로 이름을 알린 2008년부터 대표팀에서 신수지와 손연재를 가르쳐 온 지도자다. 그러나 대한체조협회는 지난 20일 손연재의 이탈리아 세리에A 초청대회 출전 여부에 대해 기술·강화·경기위원 등이 모여 논의한 연석회의에서 김지희 리듬체조 국가대표 코치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소속사의 지나친 관여로 선수 훈련과 통제에 한계를 느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 체조협회가 밝힌 이유다. 한 문장으로 압축됐지만 김 코치의 사퇴는 올림픽 이후 손연재를 놓고 체조협회와 IB스포츠 사이에 이어진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 손연재는 21일부터 태릉선수촌에서 훈련 중이며, 개인 일정에 따르면 이달 말 러시아로 출국할 예정이다. 체조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대표 선수 관리의 주체’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무분별한 행사와 대회 참가에 대해서도 직접 제한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소속사와 어떤 ‘상생의 길’을 마련하느냐가 중요해졌다. /연합뉴스

## 비너스 우승컵

WTA 룩셈부르크오픈

비너스 윌리엄스(41위·미국)가 2년 8개월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윌리엄스는 22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룩셈부르크오픈(총상금 22만달러) 대회 6일째 결승전에서 모니카 니콜레스쿠(70위·루마니아)를 2-0(6-2·6-3)으로 몰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2010년 2월 멕시코오픈에서 우승한 이후 부상과 질병 때문에 약 2시즌을 날린 비너스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본격적으로 재기에 시동을 걸었다. 아울러 44번째 우승컵을 수확하면서 45번째 우승한 동생 세리나 윌리엄스(3위·미국)에 이어 현역 여자프로테니스 선수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이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됐다. /연합뉴스